

성서 히브리어의 완곡어법과 위악어법 연구: ‘죽음’에 관한 표현을 중심으로

김동혁(연세대)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성서 히브리어 속 ‘죽음’의 완곡 및 위악어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완곡어법(euphemism)이란 화자가 청자에게 — 혹은 더 나아가 화자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있는 주변의 제삼자에게 — 불쾌함을 끼치지 않기 위해 어떤 사물이나 행위를 에둘러 말하는 표현 방식이다.¹ 이를 위해 사용하는 표현을 ‘완곡 표현’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완곡 표현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의미 영역은 성, 죽음, 질

1 허재용, “완곡어법(Euphemism)”, 한국사회언어학회 편, 「사회언어학 사전」(서울: 소통, 2012), 165; Keith Allan and Kate Burridge, *Euphemism and Dysphemism: Language Used as Shield and Weap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3; K. Burridge, “Taboo, Euphemism, and Political Correctness”, Keith Brown et al.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2nd ed.; 14 vols.; Amsterdam: Elsevier, 2005), 12: 455.

병, 배설이다.²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관해 말할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다. 완곡어법과 대조되는 위악어법(dysphemism)은 “지시 대상이나 청자와 관련하여 불쾌한 함축을 지니는 표현”이다.³ 즉, 앞에서 언급한 의미 영역에서 일부러 불쾌함을 주고자 노골적이고 불손한 표현을 쓰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어에서 죽음을 가리키는 위악 표현으로 ‘골로 보내다’가 있다.⁴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성서 히브리어학에서 완곡어법과 위악어법을 다룬 연구는 매우 적다. 그러나 구약 성서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올바른 성서 주석을 위해서는 언어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므로 인간 언어 및 상호 작용의 중요한 부분인 완곡 및 위악어법을 성서 히브리어에서 살피는 일은 필수적이다. 성서 히브리어의 완곡 및 위악어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어법이 사용되는 모든 의미 영역을 살펴야 할 것이나, 소논문이라는 공간의 제약 속에서, 또한 히브리어의 완곡 및 위악어법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에만 집중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서론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완곡 및 위악어법과 관련하여 성서 언어를 살핀 소수의 이전 연구를 개관한 후 완곡 및 위악어법을 만드는 주요한 방식인 은유와 대유의 개념을 정리한다. 본문에서는 죽음을 예둘러 가리키는 성서 히브리어의 완곡 및 위악 표현을 정리한다. 다양한 표현을 은유에 기반한 표현과 대유에 기반한 표현으로 구분하여 살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이 뒤따른다.

2 허재용, 윗글, 166.

3 Allan and Burridge, 윗글, 26.

4 박미진, “한·독 죽음 완곡어 및 위악어의 인지 구조와 기능”, 『독일언어문학』 98집 (2022년 11월), 31.

2) 연구사

완곡 및 위악어법과 관련하여 성서의 언어를 살핀 연구는 필자가 알기론 둘뿐이다. 첫째, 이영미는 소논문 “한글 성경의 성(性) 관련 용어들의 번역 용례 연구”에서 성관계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표현(예: אָדָם “알다”, נָשָׂא “눅다”), 성폭력 및 성희롱과 관련된 히브리어 표현(예: הִכָּה עֵרְוָה “하체를 벗기다”, שָׁנַל “강간하다”), 동성에 혐오와 연결되는 히브리어 표현(הוֹעֵבֵר “역겨움”)의 본래 의미와 그 한국어 번역에 관한 함의를 논의한다.⁵ 둘째, 나연서의 박사학위논문 “한글성경의 성 관련 어휘 번역 연구: 어휘의미장 분석을 중심으로”는 구약의 성 관련 어휘가 몇몇 한국어 역본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어휘의미장을 기반으로 살핀다.⁶ 나연서가 선택한 국문 역본은 개역개정, 「현대인의 성경」(생명의말씀사), 「메시지」(복있는사람), 「킹제임스흠정역」(그리스도예수안에)인데, 이 점은 비성서학자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들 중 두 역본(「메시지」, 「킹제임스흠정역」)은 중역(重譯)이며, 「현대인의성경」도 그것의 모델이 되는 영어 역본인 *The Living Bible*에 크게 영향받았기 때문이다.⁷ 요컨대, 성서

5 이영미, “한글 성경의 성(性) 관련 용어들의 번역 용례 연구”, 『성경원문연구』 28호 (2011년 4월), 86-108.

6 나연서, “한글성경의 성 관련 어휘 번역 연구: 어휘의미장 분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이 학위 논문을 요약한 소논문으로 나연서, “한글성경의 성 관련 어휘 번역 양상”, 『번역학연구』 24권 3호 (2023년 9월), 467-505가 있다.

7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메시지」는 유진 피터슨(Eugene Peterson)의 *The Message: The Bible in Contemporary Language* (1993, 1994, 1995, 1996, 2000, 2001, 2002)를 번역한 것이고, 「킹제임스흠정역」은 KJV (1611)를 번역한 것이다. 「현대인의성경」은 *The Living Bible* (1971)의 번역 원칙을 따랐다고 설명한다. 한국어 「킹제임스흠정역」의 경우 중역이라는 점 외에 또 다른 문제점을 지닌다. 「킹제임스흠정역」의 저본(Vorlage)이 되는 KJV가 열등한 필사본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킹제임스 유일주의” 및 그와 가까운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은 KJV에는 있고 우리말 공인 역본들에는 없는 신약의 13구절이 KJV의 우월성을 지지해 준다고 말하지만, 이는 본문 비평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킹제임스 유일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비판으로서 김주환, “『개역개정』의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13 ‘없음’ 구절들에 대한 소고”, 『개혁논총』 55권 (2021년 3월), 9-40을 참고하라.

속 완곡어법과 관련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으며, 완곡어법이 주요하게 사용되는 영역 중에서는 성과 관련된 영역만을 다루었다. 다른 주요 영역인 죽음, 질병, 배설을 가리키는 완곡 및 위약 표현을 다룬 연구는 없다.

3) 완곡 및 위약어법의 전략

완곡 및 위약 표현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⁸ 우리 논의의 주제인 죽음과 관련된 완곡 및 위약 표현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은유(隱喩, metaphor)와 대유(代喩)인데, 대유는 다시 제유(提喩, synecdoche)와 환유(換喩, metonymy)로 나뉜다.⁹ 이 셋은 문학에서 흔하게 언급되는 개념이지만, 학자나 학파에 따라서 약간의 모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일종의 작업가설로 셋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은유: 어떤 관념이나 사물을 유사성에 근거하여 다른 사물이나 관념과 등치시키는 비유법.¹⁰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말했다면, 이 사람은 ‘내 마음’과 ‘호수’가 비슷한 성격(잔잔함, 평안함 등)을 공유한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것이다. 이때 ‘내

8 Allan and Burridge, *윗글*, 14-20을 참고하라.

9 즉, ‘대유’는 ‘제유’와 ‘환유’를 아우른다. 필자가 살핀바 완곡 표현을 연구한 한국인 학자들의 대다수는 완곡 표현이 “은유와 환유”에 바탕을 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은유와 ‘환유’라고 말하기보다는 은유와 ‘대유’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확하다. 아래에서 보게 되듯 ‘죽음’을 에두르는 표현을 만들 때는 환유보다는 주로 제유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혼동이 생긴 이유는 (우리말에서 ‘환유’로 번역되는) 영어의 ‘metonymy’가 ‘대유’를 뜻할 때가 가끔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영어에는 제유와 환유를 아우르는 독립된 상위 단어가 없지만, ‘metonymy’가 그 공백을 종종 메운다. 영어권 학자들이 완곡 표현이 “metaphor와 metonymy”에 바탕을 둔다고 말할 때가 바로 그런 경우다. 그런데 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은유와 ‘환유’”로 기계적으로 번역함으로써 이와 같은 혼동이 생겨난 것이다.

10 이정민 외, 『언어학사전』 (3판; 서울: 박영사), s.v. “metaphor [隱喩].”

마음'은 원관념(tenor)이고 '호수'는 보조 관념(vehicle)이다.

제유: 부분이 전체를, 전체가 부분을, 개체가 집단을, 집단이 개체를, 재료가 산물 등을 나타내는 비유법.¹¹ 예컨대 '밥 먹었니?'에서 '밥'은 '끼니'를 뜻하는데, '밥'이 '끼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환유: 어떤 관념을 그 관념을 연상시키는 무언가로 표현하는 비유법.¹² 가령 '백의민족'이 '한민족'을 뜻하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이 예부터 흰옷을 즐겨 입었기 때문이다.¹³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본론에서는 성서 히브리어의 완곡 및 위약 표현의 여러 사례를 살피고자 한다. 사례들은 은유에 바탕을 둔 표현과 대유에 바탕을 둔 표현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것이다. 성서 히브리어와 함께 제시되는 우리말 번역은 필자의 사역이다. 우리말 번역이 어색한 경우가 있을 터인데, 이는 완곡 및 위약어법을 본래 의미에 가깝게 표현하기 위함이다.

2. 은유에 바탕을 둔 '죽음'의 완곡 및 위약 표현

죽음을 가리키는 완곡어법과 위약어법을 살핀 연구자들은 죽음을 에둘러 표현하는 은유의 방식을 다음 네 가지로 이해한다.¹⁴

11 이정민 외, *윳글*, s.v. "synecdoche [提喻]".

12 이정민 외, *윳글*, s.v. "metonymy [換喻]".

13 은유, 대유, 제유, 환유 등과 관련된 개념인 직유(simile), 우화(fable), 알레고리(allegory), 비유(parable), 유형론(typology)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위해서는 김동혁, "에스겔 비유의 알레고리적 해석 연습: 오리게네스의 에스겔 16장 해석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8권 1호 (2014년 4월), 32-35를 참고하라.

14 박미진, *윳글*, 29-35; 강병창/안혁, "죽음의 수사학: 완곡어법을 중심으로", 『수사학』 18집 (2013년 3월), 20-22. 학자들의 관습을 따라 은유의 핵심을 나타낼 때는 꺾쇠괄호를

- [죽음은 떠남/이동]
- [죽음은 잠/쉽]
- [죽음은 종결]
- [죽음은 잃음/상실]

이 중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첫 세 은유를 활용하는 표현들을 만날 수 있다.

1) [죽음은 떠남/이동] 은유에 바탕을 둔 표현

[죽음은 떠남/이동]은 죽음을 에둘러 표현하는 대표적인 은유이다.¹⁵ 죽음을 떠남으로 표현하는 것은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 죽은 이가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생각함으로 재회의 희망을 간직하기 때문이다. 즉, 이 은유는 죽음이 완전한 이별이라거나 소멸이라는 느낌을 감추게 된다.¹⁶ 한국어의 경우 ‘가다’, ‘세상을 떠나다/별세하다’, ‘돌아가다’ 등 많은 표현이 이 은유에 기반한다.¹⁷ 성서 히브리어에도 다양한 예가 있다.

(1) הָלַךְ בְּדֶרֶךְ כָּל-הָאָרֶץ “온 세상의 길로 가다”

הָלַךְ בְּדֶרֶךְ כָּל-הָאָרֶץ (“온 세상의 길로 가다”)는 죽음을 가리키는

쓰기로 한다.

- 15 박미진, *윳글*, 29.
- 16 잘 알려져 있듯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의 유사한 측면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 외의 측면을 억눌러 감춘다. 이 사실은 완곡어법에서도 중요하다. 즉, 완곡 표현의 바탕이 되는 은유는 어떤 개념의 부정적인 면을 감춤과 동시에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 17 [죽음은 떠남/이동] 은유에 관한 기초적인 논의로서 George Lakoff and Mark Turner,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10-11, 14-15를 보라. 이 은유에 바탕을 둔 한국어 표현에 관한 논의로 김기수, “삶과 죽음에 관한 한국어 은유 표현의 인지적 연구”, 『언어』 22권 3호 (1997년 9월), 405-408을 참고하라.

대표적인 완곡 표현이다.¹⁸ ‘온 세상의 길’, 즉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은 두말할 것 없이 ‘죽음’이다.

- ① כָּל־הָאָרֶץ הַיּוֹם בְּרַרְךָ כָּל־הָאָרֶץ “자, 내가 오늘 온 세상의 길로 가게 되었소.”(수 23:14)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한 말에서 ‘온 세상의 길로 가다’라는 표현은 완곡 표현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우선, ‘온 세상의 길’이라는 표현은 의미의 외연이 지나치게 넓은데, 이로써 ‘죽음’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을 회피한다. 그러나 ‘온 세상의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상 사람 중 안 죽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¹⁹

כָּל־הָאָרֶץ בְּרַרְךָ와 함께 쓰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 예들을 보라.

- ② כִּי־שָׁנוֹת מִסְפָּר יֵאָחֳזוּ וְאַרְחָ לֹא־אָשׁוּב אֵלֶיךָ “몇 년이 지나면 돌아오지 못할 길로 내가 갈 것이기 때문이다.”(욥 16:22)
- ③ הֲשַׁע מִמּוֹנֵי וְאִבְלִיגָה בְּטָרָם אֵלֶיךָ וְאֵינִי “내게서 눈을 돌리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로 회복하게 하소서.”(시 39:14(13))²⁰

②의 אֵלֶיךָ(“나는 갈 것이다”)는 לֹא־אָשׁוּב אֵלֶיךָ(“내가 돌아오지 못할 길”)와 함께 쓰여서 죽음을 에둘러 표현한다. ③은 אֵלֶיךָ(“내가 간다/떠난다”)만으

18 Scott B. Noegel, “Euphemism in the Hebrew Bible”, Geoffrey Khan et al. (eds.), *Encyclopedia of Hebrew Language and Linguistics* (4 vols.; Leiden: Brill, 2013), 1:869.

19 또 다른 예로 왕상 2:2가 있다.

20 성경 장절 뒤의 꺾쇠괄호 안에 숫자만 나오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장절과 기독교 성경의 장절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이때는 히브리어 장절을 먼저 적고 괄호 속에 기독교 성경의 장절을 적어 넣었다.

로 죽음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뒤따르는 אֲיִנְנִי (“내가 없어지다”) 역시 죽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²¹

(2) יָרַד “내려가다”

과거 사람들이 흔히 그랬듯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은 자들의 세계가 땅 아래에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아래로의 이동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은 죽음을 에둘러 표현할 수 있었다. [죽음은 (아래로의) 이동] 은유에 바탕을 둔 히브리어의 완곡 및 위약 표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יָרַד (“내려가다”)이다. שָׁאֵל (“스올”)과 같이 쓰일 때 특히 그러하다.

- ④ אָרַד אֶל־בְּנֵי אָבֶל שָׁאֵל “나 슬퍼하며 내 아들에게로, 스올로 내려가리라.” (창 37:35)
- ⑤ מִה־בְּצֹעַ בְּרַמִּי בְרַדְתִּי אֶל־שְׁחַת “나 구덩이로 내려갈 때 내 피가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시 30:10[9])
- ⑥ וְהוֹרַדְתָּ ... אֶל־אֲרֶץ תְּחֹתִית “그리고 네가 ... 깊음의 땅으로 내려질 것이다.” (겔 31:18)

④는 שָׁאֵל (“스올”)과 יָרַד (“내려가다”)가 함께 쓰여서 죽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²² ⑤와 ⑥에서는 שָׁאֵל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שְׁחַת (“구덩이, 무덤”)와 אֲרֶץ תְּחֹתִית (“깊음의 땅”)가 쓰였다.²³

21 이것은 대유에 바탕을 둔 완곡 표현이다. 아래를 보라.

22 같은 표현을 창 42:38; 44:29, 31; 삼상 2:6; 왕상 2:6, 9; 욥 7:9; 17:16; 사 14:15; 겔 31:15, 16, 17; 32:21, 27에서 만날 수 있다.

23 ‘구덩이/무덤으로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욥 33:24에 한 번 더 나온다. ‘깊음의 땅으로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에스겔서에 두 번 더 나온다(겔 32:18, 24). 시 63:10[9]에서는 יָרַד 의 대신 בּוֹא 가 쓰여서 비슷한 의미를 표현한다(בָּאוּ בְתַחְתִּיּוֹת הָאָרֶץ), “그들이 땅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시 55:24[23]에는 비슷한 의미를 지닌 두 단어가 연계 구문으로 묶여서(בְּאֵר שְׁחַת) 죽은 자들의 세계를 표현한다.

שָׁאֵל과 비슷한 함의를 지니는 단어로 בּוֹר(“구덩이”)도 있는데 이 말이 יָרֵד와 함께 쓰일 때는 대개 בּוֹר יָרֵד(“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의 어구로 쓰인다.

⑦ וּנְמַשְׁלֵתִי עִם־יָרְדֵי בּוֹר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 같이 질 것입니다.”(시 143:7)

בּוֹר יָרֵד(“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는 ‘죽은 자들’을 가리킨다.²⁴ יָרֵד가 בּוֹר와 함께 쓰일 때는 대개 능동 분사 연계형으로 쓰인다. 정동사(定動詞) 형태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²⁵

יָרֵד의 능동 분사형은 שָׁאֵל 혹은 בּוֹר와 비슷한 뜻을 지닌 다른 단어와도 결합하여 ‘죽은 자들’을 뜻하는 어구를 형성한다.

⑧ כָּל־יֹרְדֵי עֶפְרַיִם “티끌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시 22:30[29])

⑨ לֹא הַמָּוְתִים יְהַלְלוּהָ וְלֹא כָּל־יָרְדֵי דֹמָמָה “죽은 자들은 야웨를 찬양하지 못한다. 적막함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가 그러하다.”(시 115:17)

⑧의 יֹרְדֵי עֶפְרַיִם(“티끌로 내려가는 자들”)와 ⑨의 יָרְדֵי דֹמָמָה(“적막함으로 내려가는 자들”)는 בּוֹר יָרֵד와 구조가 같고 의미가 비슷하다. 위 두 예문에서 ‘죽은 자들의 세계’는 각각 ‘티끌’과 ‘적막함’(=적막한 공간)에 비유

24 같은 표현을 시 28:1; 30:4[3절, 크티브]; 88:5[4]; 잠 1:12; 사 38:18; 겔 26:20[2회]; 31:14, 16; 32:18, 24, 25, 29, 30에서 만날 수 있다.

25 시 30:4[3]의 경우 크티브는 בּוֹר יֹרְדֵי로 나타나지만 크레는 부정사 형태가 쓰인다(יָרְדֵי־בּוֹר).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사 14:19에 יָרְדֵי אֶל־אֲבְנֵי־בּוֹר(“구덩이의 돌들로 내려간 자들”)가 나타난다. בּוֹר와 יָרֵד가 함께 나오면서 בּוֹר יָרְדֵי가 형태가 쓰이지 않은 유일한 예는 사 14:15이다. 이 절에는 אֶל־יִרְכְּתֵי־בּוֹר … הוֹרֵד(“네가 구덩이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다만 이때도 동사는 첫 번째 콜론에만 나타나고 실제로 אֶל־יִרְכְּתֵי־בּוֹר이 속한 두 번째 콜론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된다. ‘티끌’은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무덤’을 연상시키거나 시신이 분해된 후의 결과물을 연상시키는데, 이를 죽음의 과정 — 예컨대, 눈을 감은 후 숨을 멈추고 심장이 그쳐서 죽은 후 몸이 매장되고 흙과 티끌이 되는 일련의 과정 — 의 한 단계로 본다면 대유에 바탕을 둔 완곡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²⁶ 죽은 자들의 세계, 곧 스올이 적막한 곳이라는 이해는 아마도 그곳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⑨의 첫 번째 문장이 그런 이해를 드러낸다.²⁷

(3) נָאֶסְפָּ “돌아가다”

한국어에서 죽음을 가리키는 주요한 표현인 ‘돌아가다’와 비슷한 뜻을 지니는 히브리어 표현이 있다. אָסַף (“거두다”)의 니팔 형태인 נָאֶסְפָּ (“돌아가다”, 문자적으로 ‘거뒀다’)인데, 오경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

- ⑩ אֶל-עַמּוּי וְנָאֶסְפָּ אֶל-בְּעִשְׂרֵי יוֹנָה וְיָנֹעַ יִצְחָק וְיִנְיָהּ “이삭이 숨이 다하여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창 35:29)
- ⑪ אֶסְפֶּה וְיָנֹחַ וְאֶסְפֶּה וְיָנֹחַ “아론이 돌아가게 되어 거기서 죽었다.”(민 20:26)

⑩의 אֶל-עַמּוּי וְנָאֶסְפָּ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다”)에서 ‘자기 백성’은 앞서 죽은 사람들을 가리킬 것이다. 앞서 죽은 자들이 ‘자기’의 백성이라면 죽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 이로써 죽음의 부정적인 면

26 아래를 보라.

27 אָסַף를 포함하는 ‘죽음’과 관련된 표현 중 완곡 표현과 문자적 표현의 중간 형태라고 부를 만한 것을 잠 5:5와 7:27에서 만날 수 있다. 두 곳에는 차례대로 מָוֹת וְיָרְדוּת (“죽음으로 내려간다”)와 אֶל-הַרְרֵי-מָוֹת וְיָרְדוּת (“죽음의 방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완곡 표현에 많이 쓰이는 אָסַף (“내려가다”)와 문자적으로 ‘죽음’을 뜻하는 מָוֹת가 합쳐진 어구이다.

은 가려지고 긍정적인 면이 강조된다.²⁸ ⑪은 ‘자기 백성에게로’ 같은 전치사구 없이 **יָאָסַף** 홀로 죽음을 표현한 사례다.²⁹

(4) **לָקַח** “가져가다/데려가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시다/데려가시다(**לָקַח**)’ 같은 표현은 죽음을 에둘러 표현할 수 있었다.³⁰ 이 표현 역시 [죽음은 이동] 은유에 기반한다.

- ⑫ **וְעַתָּה יְהוָה קָח־נָא אֶת־נַפְשִׁי מִמֶּנִּי כִּי טוֹב מוֹתִי מֵחַיִּי** “이제, 야훼여, 내게서 내 목숨을 가져가소서. 나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욘 4:3)
- ⑬ **לָקַח מִמֶּךָ אֶת־מַחְמַד עֵינַיִךָ בְּמִנְפֶּה** “자, 이제 내가 네게서 네 눈이 좋아하는 것을 한 번 쳐서 가져가겠다/데려가겠다.”(겔 24:16)

하나님이 니네베(니느웨)에서 재앙을 거두시자 요나는 화를 내면서 ⑫와 같이 말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시다’라는 표현은 죽음을 가리킨다. 뒤따르는 말(“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이 이 점을 확실하게 해 준다.³¹ ⑬에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은 “[에스겔

28 이 표현은 오경에만 나온다(창 25:8, 17; 49:29, 33; 민 20:24; 27:13; 31:2; 신 32:50). **עָמִים** (“백성들”) 대신 **עֲבָדִים** (“조상들”)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삿 2:10; 왕하 22:20[=대하 34:28]).

29 전치사구 없이 동사만 쓰이게 되면 어디로 돌아가는지가 명시되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모든 정보를 다 말해 주지 않는 것도 완곡어법의 중요한 특징이다. 같은 용례가 사 57:1에도 나온다.

30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쓰는 ‘소천(召天)’이란 표현이 이와 비슷한 의미를 전달한다. 채훈옥,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죽음에 관한 완곡어의 대조 분석”, 『사회언어학』 22권 1호(2014년 4월), 266n13을 참고하라.

31 요나서의 결말에 관한 내러티브 비평적 연구로 박경식, “요나 4장 10-11절의 열린 결말에 대한 내러티브 비평 연구”, 『구약논단』 28권 1호(2022년 3월), 93-123을 참고하라.

의) 눈이 좋아하는 것”인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에스겔의 아내의 생명임을 알 수 있다(겔 24:18).³²

성서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다/데려가시다’라는 표현이 죽음을 에둘러 가리킨다고 이해하게 되면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긴다. 에녹에 관한 다음 본문을 보라.

⑭ וַיִּתְהַלֵּךְ עֲנוֹךְ אֶת־הָאֱלֹהִים וְאֵינֶנּוּ כִּי־לָקַח אֹתוֹ אֱלֹהִים “에
 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없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창 5:24)

여기에는 에녹의 마지막을 말해 주는 표현이 두 개가 나온다. אֵינֶנּוּ(“그가 없었다”)와 לָקַח אֹתוֹ אֱלֹהִים(“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이다. 사르나(Nahum M. Sarna)는 이 두 표현이 모두 죽음을 가리킨다고 이해한다. 후자는 때 이른 죽음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며, 전자는 불시에 갑자기 설명할 길 없이 사라질 때 많이 쓰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르나는 본래 창세기 5장 24절이 에녹의 급작스럽고 때 이른 죽음을 서술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든 전승은 엘리야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이야기(왕하 2장) 덕분에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한다.³³ 사르나의 이해가 옳다면, 엘리야의 불의 전차 이야기와는 달리, 에녹의 짧은 이야기 속 אֵינֶנּוּ와 אֱלֹהִים

32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트라우마 이론에 기초하여 해석한 흥미로운 연구로서 양인철, “에스겔의 아내를 향한 묵언의 애도(겔 24:15-27): 에스겔의 트라우마의 관점으로 본 해석”, 『구약논단』 26권 2호 (2020년 6월), 115-148을 보라. 생명을 가져가는 주체가 사람인 경우도 있다. 삼상 24:12[11]; 왕상 19:10, 14; 시 31:14[13]를 보라. 또한 잠 1:19에서 생명을 가져가는 주체는 כָּצַע (“이득”)이다.

33 Nahum M. Sarna, *Genesis: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New JPS Translation*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43. 같은 의견으로 John Goldingay, *Genesis* (BCOTP;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0), 119를 또한 참고하라.

אָחוּ אַתָּה לָקַח is 아마도 본래 예녹의 죽음을 에둘러 가리켰을 것이다.³⁴

(5) עָבַר “건너가다”

[죽음은 이동] 은유에 기반한 완곡 표현 중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עָבַר (“건너가다”)이다.

⑮ וְאַם-לֹא יִשְׁמְעוּ בְּשִׁלַּח יְעֲבְרוּ “만약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이 칼에 갈[문자적으로: ‘건너갈’] 것이다.”(욥 36:12)

누군가가 무언가를 ‘건너서’ 내 곁을 떠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어딘가에 있는 것이다. 이로써 죽음은 곧 소멸이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³⁵

2) [죽음은 잠/쉽] 은유에 바탕을 둔 표현

[죽음은 잠] 은유는 인간의 체험과 잘 들어맞는다. 잠자는 모습은 죽은 것처럼 보이고 죽은 모습은 잠자는 것처럼 보인다. 비유하자면, 잠은 일시적인 죽음이고 죽음은 긴 잠이다.³⁶ 또한 잠은 휴식을 대표하므로 [죽음은 쉽] 은유도 성립한다.³⁷ 이 은유도 본래는 동일하지 않은 두 관념(원관념인 ‘죽음’과 보조 관념인 ‘잠’ 또는 ‘쉽’)을 등치시킴으로써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닮은 측면을 강조하고 상이한 측면을 감춘다. 이로써 원

34 그러나 본래 내러티브 속에서 여전히 예녹은 훌륭한 인물로 그려진다. 사르나가 말하듯, “예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문장이 두 번 반복된 것(22, 24절)은 “예녹의 삶이 짧았다는 것이 죄에 대한 형벌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Sarna, 윗글, 43).

35 같은 용법을 욥 33:18; 34:20; 나 1:12에서 만날 수 있다.

36 박미진, 윗글, 31.

37 [죽음은 잠/쉽] 은유에 관한 논의로서 Lakoff and Turner, 윗글, 18-19; 김기수, 윗글, 408-409; 김억조, “죽음’을 나타내는 완곡어의 인지언어학적 해석”, 『한민족어문학』 83집 (2019년), 95-97; 박미진, 윗글, 31-33을 참고하라.

관념(‘죽음’)은 보조 관념(‘잠’, ‘취’)의 긍정적인 속성 — 일시적이라는 것, 수고한 뒤에 오는 보상이라는 것 등 — 을 부여받는다.³⁸ 그리하여 죽음이 영원하다는 두려움, 인생의 어두운 측면이라는 두려움을 잊도록 해준다.

(1) שָׁן “잠들다”

한국어의 완곡 표현 중 하나인 ‘영면(永眠)에 들다’에 비길 만한 표현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다.

⑩ וַיָּשְׁנוּ שְׁנַת־עוֹלָם לֹא יִקְצוּ “그들이 영원한 잠을 자고 깨지 못할 것이다.”(렘 51:39, 57)

שְׁנַת־עוֹלָם의 의미는 ‘영원한 잠’이므로 שָׁן שְׁנַת־עוֹלָם (“영원한 잠을 자다”)은 한국어 완곡 표현인 ‘영면에 들다’와 본 뜻이 같다. 다만 위 본문의 맥락과 한국어 표현 ‘영면’이 사용되는 맥락을 비교해 보면 둘의 어감은 서로 다른 듯하다. ‘영면’은 손윗사람의 죽음에 예를 갖추어 쓰는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위 본문의 맥락인 예레미야 51장은 바빌로니아 제국의 멸망을 선언하는 심판 예언이므로 שְׁנַת־עוֹלָם은 긍정적인 어감을 주지 않는다.³⁹

38 박미진, 윗글, 31-32.

39 שָׁן이 죽음을 표현하는 다른 예를 단 12:2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시 13:4(3)에는 완곡 표현은 아니지만 הִמְנוֹת שָׁן (“죽음을 잠자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 어구는 완곡 표현과 문자적 표현의 차이가 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2) טָקַט “안식하다”, נוּחַ “쉬다”

아래에 인용된 욥의 탄식은 ‘죽음’을 에둘러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을 보여 준다.

⑰ לִי אִם אֶשְׁכַּח אֶת שְׁכַבְתִּי וְאֶשְׁקֹט אִם אֶשְׁנֶה לִּי “그러면 이제 내가 누워서 안식하고 잠들 터인데. 그러면 내게 쉽이 있을 터인데.”(욥 3:13)

욥기 3장에서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기가 모태에서 죽어서 나왔어야 했다고 탄식한다. 그랬다면 그가 눕고(שָׁכַבְתִּי) 안식하고(טָקַט) 잠들고(וַשְׁנֵה) 쉬었을(נוּחַ)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네 단어는 모두 죽음을 가리킨다. 이 중 טָקַט(“안식하다”)와 נוּחַ(“쉬다”)는 [죽음은 쉽] 은유와 관련된다.⁴⁰

3) [죽음은 종결] 은유에 바탕을 둔 표현

삶을 쭉 이어지는 과정으로 본다면 죽음은 그 과정이 끝나는 것이므로, [죽음은 종결] 은유가 성립된다. 한국어의 경우 ‘삶을 마감하다’ 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가톨릭에서 쓰는 ‘선종(善終)’도 비슷한 예다.⁴¹

(1) מָלַמְ “완료되다/끝나다”

‘완료되다’, ‘온전해지다’를 뜻하는 자동사 מָלַמְ은 ‘죽다’를 대체할 수 있다.

40 כָּכַח(“눕다”)는 [죽음은 잠] 은유에 바탕을 둔 완곡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유에 바탕을 둔 완곡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아래를 보라.

41 ‘선종’은 죽기 전 성사를 받아 죄를 용서받은 상태에서 — 즉 선한 상태에서 — 삶을 마감하는 것을 뜻한다(박미진, 윗글, 33).

- ⑱ **וְשָׁם יָמָתוּ** **יָהִה בְּמִדְבָּר הַזֶּה** “이 광야에서 그들이 끝날 것이다. 거기서 그들이 죽을 것이다.”(민 14:35)

‘끝날 것이다’로 번역한 **יָמָתוּ**가 죽음을 가리킨다는 점은 뒤따르는 문장 (“거기서 그들이 죽을 것이다”)을 통해 알 수 있다.⁴²

- (2) **כָּלָה** “완료되다/끝나다”, **כָּלָה** “완료시키다/끝내다”

כָּלָה는 칼(**כָּלָה**)일 때는 자동사가 되고 피엘(**כָּלָה**)일 때는 타동사가 된다. 전자는 ‘죽다’를 예둘러 표현할 수 있고, 후자는 ‘죽이다’를 예둘러 표현할 수 있다. 우선, 칼인 경우를 보라.

- ⑲ **וְעֵיבֵי יְהוָה יִכְלֹוּ** “야훼를 버리는 자들은 끝(장)날 것이다.”(사 1:28)

- ⑳ **כָּלֹו בְעֵשֶׂן יָמָי** “나의 날들은 연기 속에서 다하였습니다.”(시 102:4(3))

⑲에서 **יִכְלֹוּ** (“끝나다”)는 ‘죽다’를 대체한다.⁴³ 그런데 이것은 불쾌한 감정을 피하기 위한 완곡어법이라기보다는 공격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위악어법에 가깝다(‘끝장나다’로 번역하면 그런 함의를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다).⁴⁴ 완곡어법과 위악어법의 경계가 늘 분명한 것은 아니다. 다만 둘 모두 은유나 대유에 바탕을 둔다는 점은 공통된다. ⑳은 **יָמָי**(“나의 날들”)와 **כָּלָה**(“끝나다”)가 각각 주어와 술어로 쓰여서 나의 수명이 다했음을

42 비슷한 쓰임을 신 2:14, 15, 16; 수 5:6; 10:20; 왕하 7:13; 사 16:4; 렘 14:15; 24:10; 44:12[2회], 18, 27; 시 73:19; 104:35 등에서 볼 수 있다.

43 비슷한 예로 욥 4:9; 시 37:20[2회]; 71:13; 사 29:20; 31:3; 렘 16:4; 44:27; 겔 5:12; 13:14; 말 3:6을 보라.

44 예컨대, 박미진, 윗글, 33-34; 조혜진, “한국어와 스페인어 죽음 위악어의 동기화와 인지 구조”, 『지중해지역연구』 19권 2호 (2017년 5월), 163-164를 보라.

표현한다.⁴⁵

피엘형 כָּלָה가 ‘죽이다’를 에둘러 표현한 예를 보라.

㉑ וַיִּחַר־אַפִּי בָהֶם וְאָכַלְתֶּם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라서 내가 그들을 끝장내겠다.”(출 32:10)

동사 כָּלָה는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 대상이 사람인 때가 많다. 이 경우 그 뜻은 대개 하나님이 그들을 ‘끝장’내신다는 것이다. 즉, 완곡 표현이라기보다는 위악 표현인 경우가 더 많다.⁴⁶

(3) נָכַרְתָּ “끊기다”, כָּרַת “끊다”

כָּרַת의 칼 형태인 כָּרַת (“끊다”)와 니팔 형태인 נָכַרְתָּ (“끊기다”)도 [죽음은 종결] 은유에 기대어 죽음을 에둘러 표현할 수 있다.

㉒ וְנִכְרְתָהּ הַנֶּפֶשׁ הַהִוא מֵעַמִּיהָ “그 생명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창 17:14)

㉓ וְנִכְרְתֶנּוּ מֵאֶרֶץ חַיִּים “산 자들의 땅에서 그를 끊어내자!”(렘 11:19)

니팔형(וְנִכְרְתָהּ)이 사용된 ㉒ 같은 문장은 오경을 비롯하여 성경에서 많이 만날 수 있다. 한국어 성경에서 대개 ‘끊어지다’로 번역되는 이 표현의 궁극적인 뜻은 생명의 종결, 즉 죽음이다.⁴⁷ ㉓은 כָּרַת의 칼 형태

45 또한 욥 7:6; 시 31:11[10]; 렘 20:18을 보라.

46 비슷한 예로 출 32:12; 33:3, 5; 레 26:44; 민 16:21; 17:10[16:45]; 25:11; 신 7:22; 28:21; 수 24:20; 삼상 15:18; 삼하 21:5; 22:38, 39; 왕상 22:11; 왕하 13:17, 19; 대하 8:8; 18:10; 20:23; 스 9:14; 욥 9:22; 시 18:38[37]; 59:14[13절, 2회]; 119:87; 렘 5:3; 9:15[16]; 10:25; 14:12; 49:37; 애 2:22; 겔 20:13; 22:31; 43:8을 보라.

47 필자가 찾은 용례는 창 9:11; 출 12:15, 19; 30:33, 38; 31:14; 레 7:20, 21, 25, 27;

(וְנִכְרְתָנוּ) (“우리가 끊어내자!”)가 죽음을 예둘러 표현한 예이다.⁴⁸

(4) כָּצַע “끊다”

כָּרַת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כָּצַע도 죽음을 예둘러 가리킬 수 있다. כָּרַת의 니팔(וְנִכְרְתָנוּ)과 칼(כָּרַת)이 그랬듯 כָּצַע의 칼(כָּצַע)과 피엘(כָּצַע)은 각각 ‘죽다’와 ‘죽이다’를 대체할 수 있다.

②4 וַיִּכְצְעֵנִי יְהוָה יָדוֹ “[하나님이]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시기를!”(욥 6:9)

②5 מִהֲתִקְוֶת הַיָּמָּה כִּי יִכְצַע “그가 끊어질 때에 경건하지 못한 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욥 27:8)

②4에서 고통 중에 있던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시기를 바란다. ②5에서 כָּצַע의 칼 형태(וְכָצַע)는 כָּרַת의 니팔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⁴⁹

3. 대유에 바탕을 둔 ‘죽음’의 완곡 및 위약 표현

죽음을 가리키는 완곡 및 위약 표현의 바탕이 되는 대유의 전략은 제한적이다. 제유와 환유 중 대개 제유만 사용되고, 제유의 두 전략인 [부분이 전체를 대신]과 [전체가 부분을 대신] 중에서도 주로 전자만

17:4, 9, 14; 18:29; 19:8; 20:17, 18; 22:3; 23:29; 민 9:13; 15:30, 31; 19:13, 20; 시 37:9, 22, 28, 34; 잠 2:22; 단 9:26; 욥 1:9, 10; 미 5:8[9]; 나 2:1[1:15]; 속 13:8; 14:2이다.

48 כָּרַת의 칼 형태가 죽음을 가리키는 경우는 매우 적은 듯하다. 필자가 찾은 것은 위 구절 외에 렘 50:16뿐이다.

49 כָּצַע의 피엘이 욥 6:9처럼 쓰인 예는 사 38:12에서도 만날 수 있다. 이 어근의 칼 형태가 욥 27:8처럼 쓰인 또 다른 예는 렘 51:13에서 만날 수 있다.

사용된다.⁵⁰ [부분이 전체를 대신] 제유가 죽음을 예들려 표현하는 방식은 대개 죽음 전후의 일련의 과정 중 한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 한 단계가 죽음이라는 전체 과정을 대신하게 된다. 가령 죽음 전후의 전체 과정은 눅고(혹은 쓰러지고), 눈을 감고,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추고, 피가 돌지 않고, 뇌를 비롯한 신체 기관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단계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앞뒤로 더 가 보면 병드는 단계나 시신을 매장하고 몸이 부패하는 것 같은 단계도 포함할 수 있다. 이 중 성서 히브리어에서 만날 수 있는 몇몇 예를 살펴보자.

1) חָלָה “병들다”

성경 속 몇몇 인물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병에 든 것으로 서술된다. 이 중 죽음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죽음을 말한 아래의 예를 보라.

② חָלָה וַיֹּאמֶר לְיוֹסֵף הֲיֵנָה אֲבִירָה חָלָה “누군가 요셉에게 말했다.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아프십니다.’”(창 48:1)

여기서 야곱이 걸린 병은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병이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요셉도 그 점을 이해한다. 이는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야곱에게 데려가 축복받게 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48:1, 9).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아프십니다.”라는 말은 죽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죽음의 과정 중 한 단계만 말함으로써 죽음을 예들려 가리킨다.

50 물론 [전체가 부분을 대신] 제유에 바탕을 둔 표현도 있다. 대표적인 것은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라는 모호하고 일반적인 표현은 ‘죽음’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대신한다(박미진, 윗글, 35-36. 또한 윤희주, “완곡어법과 위악어법의 번역원인 및 번역방법”, 『번역학연구』 8권 1호 (2007년 3월), 197을 보라).

2) נָפַל “쓰러지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대개 쓰러지므로, 쓰러지는 것은 죽음의 과정을 대표하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성서 히브리어의 נָפַל(“쓰러지다”)도 죽음을 예들려 표현할 수 있다.

- ⑳ **וַיֹּאמֶר הַמֶּלֶךְ אֶל־עַבְדָּיו הֲלֹא תִדְעוּ כִּי־שָׂר וְגִדּוּל נָפַל הַיּוֹם**
 “[다윗]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도자요 위대한 자가 쓰러진 것을?’”(삼하 3:38)

㉑에서 다윗왕은 아브넬 장군(“지도자요 위대한 자”)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아브넬이 죽었다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쓰러졌다고만 말한다. 이것은 [부분이 전체를 대신] 제유에 기반한 완곡 표현이다.⁵¹

נָפַל이 모욕감을 주기 위한 위약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다. 이는 한국어에서 ‘쓰러지다’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고꾸라지다’, ‘거꾸러지다’ 같은 단어들에 위약 표현으로 쓰이는 것에 견줄 수 있다.⁵²

- ㉒ **אָכֵן כְּאָדָם תְּמוֹתוֹן וְכֶאֱחָד הַשָּׂרִים תִּפְלוּ**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통치자 중 한 사람같이 고꾸라질 것이다.”(시 82:7)
- ㉓ **בֵּין רַגְלֶיהָ כָּרַע נָפַל שָׁכַב**
 “그[시스라]가 그[야엘]의 발 앞에 고부라지고 쓰러져서 누웠구나!”(삿 5:27)

51 נָפַל이 [부분이 전체를 대신] 대유에 바탕을 두어 죽음을 예들려 표현하는 사례는 매우 많다. 일부만 예를 들면 출 19:21; 32:28; 삿 5:27; 삼상 4:10; 삼하 3:29, 34, 38; 21:9; 사 31:8이 있다.

52 예를 들어, 박미진, 윗글, 38; 조혜진, 윗글, 164를 보라.

㉘이 포함된 시편 82편은 하나님께서 신들을 꾸짖으시는 내용이다. 그들은 천상적 존재들이지만(1절)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악인들의 편을 들었기에(2절) 이제는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7절). 시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㉘에서 죽음을 에둘러 표현하는 נָפַל은 청자들(“신들”)에게 모욕을 주려는 위악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 ㉙는 야엘에게 암살당한 시스라의 최후를 시적으로 그린다. 동사 셋이 접속사 없이 잇따라 표현됨으로써(כָּרַע נָפַל שָׁכַב) 청중은 슬로모션을 보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다.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시스라의 죽음이 מוֹת(“죽다”), הָרַג(“죽이다”), קָטַל(“죽이다”)같이 죽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대유로 표현됐다는 점이다. 즉, 각각 ‘고부라지다’, ‘쓰러지다’, ‘눅다’로 번역된 כָּרַע, נָפַל, שָׁכַב는 모두 제유에 바탕을 둔 에두른 표현이다. 사사기 5장의 분위기는 시스라의 죽음을 조롱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완곡 표현이라기보다는 위악 표현이다.⁵³

3) שָׁכַב “눅다”

נָפַל과 더불어 שָׁכַב(“눅다”)도 ‘죽다’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⁵⁴ 이 단어도 완곡 표현과 위악 표현으로 모두 쓰일 수 있다.

③〇 וַיִּשְׁכַּב דָּוִד עִם־אֲבֹתָיו וַיִּקְבֹּר בְּעִיר דָּוִד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가 다윗성에 매장되었다.”(왕상 2:10)

“자기 조상들과 함께(עִם־אֲבֹתָיו) 누웠다(שָׁכַב)”라는 표현은 한 왕이 죽고 다음 왕이 즉위하는 과정을 서술할 때 늘 사용되고 그 외 다른 곳에

53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사건에 대한 저항적 해석으로서 이은애, “전쟁에 대한 저항 폭력: 젠더 관점에서 본 전쟁 내러티브”, 『구약논단』 27권 3호 (2021년 9월), 256-258을 보라.

54 שָׁכַב는 성관계를 대유하는 완곡 표현으로도 자주 쓰인다. 이영미, 윗글을 참고하라.

서도 많이 사용된다.⁵⁵ 또한 כִּשְׁבֹּץ는 앞에서 이미 보았듯(⑰, ⑲) ‘자기 조상들과’라는 어구가 없어도 죽음을 에둘러 표현할 수 있다.⁵⁶ 그중에는 ⑲처럼 위악 표현으로 쓰이는 것들도 있다.⁵⁷

4) אֵין “없다”

죽음을 구성하는 모든 과정의 마지막은 소멸일 것이다. 따라서 [부분이 전체를 대신] 제유에 기반하여 ‘없음’이 ‘죽음’을 대신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죽음은 떠남/이동] 은유와도 관련이 있다. 어떤 이가 떠나고 나면 더는 없기 때문이다. 성서 속 몇몇 예를 보라.

- ① אֵינְנָהּ מֵאַנְהָ לְהִנָּחֵם עַל-בְּנֵיהָ כִּי אֵינְנָהּ “그(라헬)가 자식들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그들[자식들]이 더는 없기 때문이다.”(렘 31:15)
- ② הֲשַׁע מִמֶּנִּי וְאַבְלִיגָה בְּטָרָם אֵלַי וְאֵינְנִי “내게서 눈을 돌리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회복하게 하소서.”(시 39:14(13))

①에 인용된 예레미야의 예언은 북왕국의 강제 이주를 라헬이 자식들을 잃은 것으로 표현한다. 앞에서 ③으로 인용한 바 있는 ②에서는 [죽음은 떠남/이동] 은유(“내가 떠나”)의 뒤를 이어 [부분이 전체를 대신]

55 한 왕이 죽고 다음 왕이 즉위하는 과정을 서술할 때 사용되는 경우는 왕상 2:10; 11:43(=대하 9:31); 14:20, 31(=대하 12:16); 15:8(=대하 13:23), 24; 16:6, 28; 22:40, 51(50)(=대하 21:1); 왕하 8:24; 10:35; 13:9, 13; 14:16, 29; 15:7, 22, 38(=대하 27:9); 16:20(=대하 28:27); 20:21(=대하 32:33); 21:18(=대하 33:20); 24:6; 대하 26:23이다. 그 외의 경우에 사용된 예로 필자가 찾아낸 것들은 창 47:30; 신 31:16; 삼하 7:12; 왕상 1:21; 11:21; 왕하 14:22(=대하 26:2); 대하 16:13. 이들 예에서 전치사는 대개 אַף가 쓰이고 삼하 7:12에서만 אַח가 쓰인다.

56 또 다른 예로 욥 7:21; 14:12; 20:11; 21:26; 겔 31:18; 32:19, 21, 27, 28, 29, 30, 32를 보라.

57 각주 56의 예들 중 에스겔서의 예들이 대표적이다. 에스겔 31, 32장은 죽음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조롱하는 심판 예언이다.

제유(“없어지기”)가 이어진다. ‘떠나다’와 ‘없어지다’ 두 동사 모두 죽음을 에둘러 표현한다.⁵⁸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성서 히브리어에서 죽음을 표현하는 완곡어법과 위약어법의 다양한 형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은유에 바탕을 둔 ‘죽음’의 완곡 및 위약 표현

[죽음은 떠남/이동]	<p>הָלַךְ בְּדֶרֶךְ כָּל־הָאָרֶץ “온 세상의 길로 가다” יָרַד “내려가다” נָאֶסַף “돌아가다” לָקַח “가져가다/데려가다” עָבַר “건너가다”</p>
[죽음은 잠/쉼]	<p>יָשָׁן “잠들다” שָׁקַט “안식하다”, נִוַח “쉬다”</p>
[죽음은 종결]	<p>תָּמַם “완료되다/끝나다” כָּלָה “완료되다/끝나다”, כָּלְהָ “완료시키다/끝내다” נִכְרְתָה “끊기다”, כָּרַת “끊다” כָּצַע “끊다”</p>

58 ‘없음’이 ‘죽음’을 대신하는 다른 예로 창 5:24; 42:13, 32, 36; 욥 7:8, 21; 8:22; 시 37:10, 36; 59:14(13); 103:16; 104:35; 잠 12:7; 사 17:14; 렘 49:10; 애 5:7; 겔 26:21; 27:36; 28:19를 보라.

	הָלַף “병들다”
[부분이 전체를 대신]	נָפַל “쓰러지다”
	כָּבַד “눕다”
	אָזַל “없다”

완곡어법은 죽음을 예들러 표현하여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완화하는 언어 전략이다. 주로 은유와 대유(제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은유로는 [죽음은 떠남/이동], [죽음은 잠/쉽], [죽음은 종결] 은유가 주로 사용되고, 대유 중에서는 [부분이 전체를 대신] 제유가 주로 사용된다. 위약어법은 의도적으로 불쾌하거나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언어 전략이다. 성서 히브리어에 위약어법이 많지는 않지만, הָלַף(“끝나다”)와 הָלַף(“끝내다”), נָפַל(“쓰러지다”), כָּבַד(“눕다”) 같은 경우 위약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성서 히브리어의 완곡어법과 위약어법을 살피는 일은 궁극적으로 성서 주석에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죽음과 관련된 언어 표현들은 성서가 그려 주는 사람들의, 그리고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구약의 죽음 관련 표현들은 성서가 말해 주는 시대 및 성서가 기록된 시대의 죽음과 관련된 문화 및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성서 히브리어의 다른 의미 영역에서도 완곡어법과 위약어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구약 성서 전반에 걸친 언어적 특성과 문화적 맥락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병창/안혁, “죽음의 수사학: 완곡어법을 중심으로”, 『수사학』 18집 (2013년 3월), 5-35.
- 김기수, “삶과 죽음에 관한 한국어 은유 표현의 인지적 연구”, 『언어』 22권 3호 (1997년 9월), 391-412.
- 김동혁, “에스겔 비유의 알레고리적 해석 연습: 오리게네스의 에스겔 16장 해석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8권 1호 (2014년 4월), 31-50.
- 김억조, “‘죽음’을 나타내는 완곡어의 인지언어학적 해석”, 『한민족어문학』 83집 (2019년), 79-102.
- 김주한, 『『개역개정』의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13 ‘없음’ 구절들에 대한 소고』, 『개혁논총』 55권 (2021년 3월), 9-40.
- 나연서, “한글성경의 성 관련 어휘 번역 연구: 어휘의미장 분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_____, “한글성경의 성 관련 어휘 번역 양상”, 『번역학연구』 24권 3호 (2023년 9월), 467-505.
- 박경식, “요나 4장 10-11절의 열린 결말에 대한 내러티브 비평 연구”, 『구약논단』 28권 1호 (2022년 3월), 93-123.
- 박미진, “한·독 죽음 완곡어 및 위약어의 인지 구조와 기능”, 『독일언어문학』 98집 (2022년 11월), 23-46.
- 양인철, “에스겔의 아내를 향한 묵언의 애도(겔 24:15-27): 에스겔의 트라우마의 관점으로 본 해석”, 『구약논단』 26권 2호 (2020년 6월), 115-148.
- 윤희주, “완곡어법과 위약어법의 번역원인 및 번역방법”, 『번역학연구』 8권 1호 (2007년 3월), 193-220.
- 이영미, “한글 성경의 성(性) 관련 용어들의 번역 용례 연구”, 『성경원문연구』 28호 (2011년 4월), 86-108.
- 이은애, “전쟁에 대한 저항 폭력: 젠더 관점에서 본 전쟁 내러티브”, 『구약논단』 27권 3호 (2021년 9월), 248-275.
- 이정민/배영남/김용석, 『언어학사전』 (3판; 서울: 박영사, 2000).
- 조혜진, “한국어와 스페인어 죽음 위약어의 동기화와 인지구조”, 『지중해지역연구』 19권 2호 (2017년 5월), 149-175.
- 채춘옥,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죽음에 관한 완곡어의 대조 분석”, 『사회언어학』 22권 1호 (2014년 4월), 255-279.
- 허재용, “완곡어법(Euphemism)”, 한국사회언어학회 편, 『사회언어학 사전』 (서울:

소통, 2012), 165-166.

Allan, Keith and Kate Burridge, *Euphemism and Dysphemism: Language Used as Shield and Weap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Burridge, K., "Taboo, Euphemism, and Political Correctness", Keith Brown et al.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2nd ed.; 14 vols.; Amsterdam: Elsevier, 2005), 455-462.

Goldingay, John, *Genesis* (BCOTP;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0).

Lakoff, George and Mark Turner,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Noegel, Scott B., "Euphemism in the Hebrew Bible", Geoffrey Khan et al. (eds.), *Encyclopedia of Hebrew Language and Linguistics* (4 vols.; Leiden: Brill, 2013), 1:869-871.

Sarna, Nahum M., *Genesis: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New JPS Translation*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검색어

금기, 은유, 대유, 제유, 환유

[ABSTRACT]

Euphemisms and Dysphemisms for “Death” in Biblical Hebrew

Dong-Hyuk Kim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euphemisms and dysphemisms related to “death” in Biblical Hebrew. Euphemisms involve avoiding direct expressions to minimize discomfort, while dysphemisms use language that intentionally provokes discomfort. Research on euphemisms and dysphemisms in Biblical Hebrew, particularly concerning death, is limited.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is gap by analyzing relevant euphemisms and dysphemisms in Biblical Hebrew.

The essay begins wit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on euphemism and dysphemism in biblical language, followed by an overview of the concepts of metaphor and metonymy. A metaphor is a figure of speech in which ideas or objects are expressed through similarities to other things, while metonymy involves representing a part for the whole or the whole for a part.

The main section of the study categorizes and examines euphemistic and dysphemistic expressions related to death, distinguishing between those based on metaphors and those based on metonymies. Three primary metaphors for death are identified: death as departure/movement; death as sleep/rest; and death as termination. Additionally, the metonymies underlying euphemistic and dysphemistic expressions of death are

www.kci.go.kr

predominantly synecdochic, where a part represents the whole.

By systematically analyzing various euphemistic and dysphemistic expressions related to death in Biblical Hebrew, this study enhances our understanding of both the language itself and how the people depicted in the Old Testament, as well as those who recorded it, conceptualized death.

key words

taboo, metaphor, synecdoche, metonymy

투고일: 2024년 07월 22일

심사일: 2024년 08월 12일

게재 확정일: 2024년 08월 25일

www.kci.go.kr